

백두산에서 대종교 상징물 발굴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술연구집단이 백두산의 장군봉에서 대종교관련유물을 발굴하고 고증하였다.

대종교는 1909년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으로 발생한 순수한 조선종교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운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숭배하고 민족의 기원과 단일성의 시점을 단군에게서 찾는 등 민족예를 지닌 종교이다.

발굴된 유물은 길이 31cm, 너비 21.5cm의 대리석판과 한번의 길이가 17.5cm인 바른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이다.

대리석판에는 수천년전에

사용된 옛 글자로 제목굴과 그아래에 가로세로 9자씩 총 81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연구집단은 대리석판에 새긴 글의 내용이 대종교의 기본경전의 하나인 《천부경》이며 푸른색옥돌판은 단군을 상징하여 만든것이라는것과 석판제작에 함경남도 리원지

방에서 나오는 대리석과 함경북도 청진지방에서 나오는 사문석이 이용되었다는것을 고증하였다.

이 석판들이 백두산에 묻힌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인들이 백두산을 조선민족의 성지, 대종교의 성지로 여기면서 열렬히 숭상하였기때문이라고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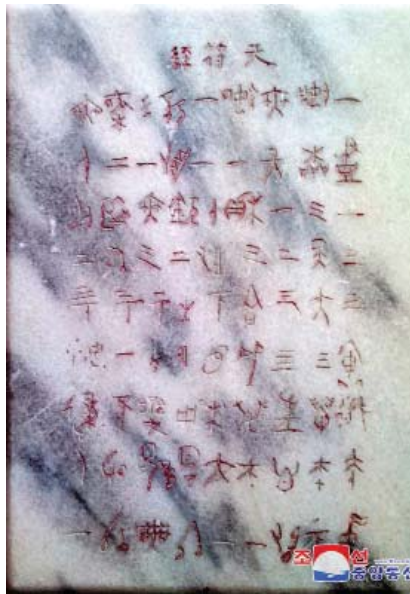
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조선에 대한 숭상이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회고하시였다.

대종교에서 백두산을 높히 숭상한것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절세의 위인이 출현하기를 애리게 바라던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반영이였다.

백두산에서 발굴된 대종교의 석판들은 통신비각,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 종덕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형성된 우리 민족의 백두산 숭상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로 된다.

본사기자



만경봉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의 대동강기슭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만경봉은 해발높이가 45m이며 이곳에 오르면 두리의 만가지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라 하여 예로부터 만경봉으로 불리워온다.

만경봉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경의의 지와 큰 뜻을 키워 나가시던 불멸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들여있는 학습터, 씨름터, 무지개잡이소나무, 샘물터 등이 있다.

봉우리의 남서쪽기슭에는 위대한

만경봉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 고향집이 있다.

만경봉의 산봉우리는 주로 혈암, 편마암으로 이루어져있다.

만경봉의 동쪽에는 벼랑이 있으며 그림으로는 맑고 푸른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있다.

산봉우리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숲이 우거져있고 곳곳에서 평양단풍나무, 진나무, 진달래, 넓은잎장항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리고 갖가지의 관상용꽃나무들이 자라고있다.

첼따라 푸른 숲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은 만경봉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더욱 뛰어나게 한다.

특히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이 피어나는 4월의 만경봉은 한쪽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봉우리에는 만경대정각이 있다.

여기서는 대동강의 한복판에 넓게 자리잡고있는 두루섬과 관유섬, 만경대일대의 자연풍치와 함께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의 모습 등 두리의 모든것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본사기자



목란은 목란과의 일종이다.

목란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함박꽃나무, 목련화(원꽃과 같은것)이 나무에 핀다는 뜻)로 불리워왔다.

함경북도와 량강도, 가장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각

지의 산골짜기, 산허리 등 습한 곳에서 다른 나무들과 같이 자란다.

나무높이는 2~5m이며 보통 여러대의 원줄기가 뿌리목에서 모여나와 포기를 이루며 드물게는 줄기가 외대로 나와 작은 키나무처럼 자란다.

꽃이 제일 많이 피는 시기는 5월말~6월 중순이며 7월 초중순에는 거의 다 진다.

추위견딜성이 세며 잘 자란다. 높은 토양습도와 대기습도를 요구하며 특히 꽃피는 시기에 많은 물기를 요구한다.

번식은 씨앗, 접, 가지취어붙기, 포기가르기 등으로

하루 가지심기도 할수 있다.

목란은 나무모발에서 7~8년 자래워 대상지에 옮겨심는다.

목란은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나무잎과 나무모양이 보기 좋으므로 큰 공원, 유원지에 계곡을 형성하고 다른 나무들과 섞어심으면 나무도 잘 자라고 풍치도 좋아진다.

목란은 화분에 심어 방안과 주요건축물의 입구양쪽, 휴게실, 회의장 등에 놓으면 좋다.

꽃은 고급향료의 원료로 쓰며 잎은 서리전에 따서 그늘에 말리어 고혈압증이나 어지럼증에 쓴다.

본사기자

민족무용-《돈돌타리》

지난날 함경도 동해안지방의 민족무용을 말한다.

춤은 일래 해마다 4월에 녀성들이 달래를 케면서 추던 룬무형식의 춤이었다.

그후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조국해방의 세일이 하루빨리 동러오기를 바라는 이 지방 인민들의 념원을 담아 《동돌타리》로 불리워지면서 보다 대중적인 춤으로 더욱 즐기치게 추어졌다.

춤은 흥겨운 잣은모리장단 혹은 덩덕장단을 타고 물에 가득 채운 함치나 낚그릇에 바가지를 얹어놓고 막대기나 맨손바닥으로 그것을

두드리 궁글고 부드러운 소리의 리듬으로 흥취를 돋구었다.

강약이 명확한 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첫걸음을 크게 내걸고 깊은 굴신을 하였다가 다음번부터 얇은 굴신으로 가볍게 걸어나가는 건기 동작은 어찌 보면 한발을 잘름거리려는듯 한 독특한 물동감을 자아낸다.

또한 걸기물동에 맞추어 머리와 함께 두팔을 겹쳐 좌우로 살레살레 흔들다가 두손목을 강하게 펴며 한동작을 매듭짓는 가락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온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면서 손목을 돌려 얼굴을 살살살락 가리우는 동작, 그와 대조되게 두팔을 앞뒤로 활달하게 흔들며 스텝달려가는 동작, 땅에 무릎

대고 몸방향을 급속히 바꾸거나 허리를 들어돌리며 바가지장단을 치는 동작 등은 돈돌타리춤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적인 동작들이다.

본사기자

사화

치마폭에 그린 포도송이 (2)

글 박홍준, 그림 채대성

이윽고 신사임당은 그녀가 벗어놓은 붉은 비단치마를 펼쳐놓고 그우에 붓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잠깐사이엔 붉은 치마폭우에는 몇줄기의 포도넝쿨이 짙죽 뻗어나가고 크고작은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수놓아졌으며 보기에도 소담하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한송이, 두송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불씨가 된 비단치마가 아니라 눈이 부시게 붉은 비단천을 바탕으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울렸다.

그림이 다 되자 신사임당은 그것을 녀인에게 넘겨주면서 여기서 한양이 멀지 않으니 장안저자거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자

세히 일러서 보내었다.

그 녀인이 저자거리에 찾아가보니 거기에 신사임당이 말하던대로 여러가지 그림과 붓끝씨족자들이 주런이 걸려있는 가게방이 하나 있었다.

가게방안에는 주인인듯한 늙스그레한 경망이 랑건 바람으로 앉아있고 그와 마주하여 말쑥하게 옷차림을 한 젊은 선비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 녀인은 잠시 밖에서 망설이다가 가게방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는 가게방주인앞에 포도송이를 그린 치마폭을 펼쳐 보이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저의 집 마님께서 이 그림을 팔아가시고 오라기에...》

처음에는 의아한 눈길로 그 녀인과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던 가게방주인의 얼굴에 차츰 놀라와하는 기색이 드러났다.

《호흡...》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던 젊은 주인은 속으로 은근히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비록 거기에 락관(벌자의 서명)은 없으나 그것은 여느 환경이들이 돈벌이삼아 그려가지고 오는 속된 그림들에 비하면 동트게 뛰어난 그림이었던것이다.

필법이 이룬데없이 정교하였고 그림에서 풍기는 운치가 더없이 고상하고 은은하였다.

그러나 오랜 장사속으로 이골이 난 늙은 가게방주인은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집짓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녀인에게 물었다.

《그래 얼마에 파시려요?》

《그저 좋도록 쳐분해주시와요.》

녀인은 입안의 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사실은 신사임당이 이 그림을 저자에 가지고나가면 아무리 못받아도 비단치마 한값같은 녀근히 나올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외를 용서가 싯뜻 나지 않았던것이다.

가게방주인은 처음부터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에 서있는것이 어수룩한 촌녀인같기도 하여

아예 눈거리홍정으로 횡재를 해볼가 하는 마음이 동하기도 하였으나 그해도 그림그린 바랑천의 밀친값은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아하니 사정이 급해서 가지고 나온 물건인것 같은데 그림은 그다 마음에 없었지만 그래도 내 집을 믿고 찾아온 건데 어찌했소. 내 생각해주겠으니 친한에 두어두고 가겠소?》 하고 좀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러자 녀인이 미처 대꾸할 사이도 없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가 불쑥 한마디 끼어들었다.

《헤, 주인장이 잘못 보는것 같은데 내 보기엔 이 그림이 폐사 그림과는 다르구만. 대단히 훌륭한걸.》

그 선비로 말하면 이 가게방주인과 거레가 많은 단골손님으로 세에 대한 조예

가 깊었다.

마음 갈아서는 자가 후하게 값을 치르고 그 그림을 사고싶었지만 가게방주인이 붙여놓은 흥정을 곁에서 가로채는것이 도리에 어긋날것 같아서 이렇게 점잖게 돌려 말한것이었다.

《예, 그림은 풍사운데 재력을 알수 없는 그림이 돼서...》

주인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며 단골손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림이라는데 여느 물건과는 달리 일자를 잘 만나면 재값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를 만나지 못하면 십년이 가도 팔리지 않는 까로운 것이어서 그림장수인 날 두 전판노름이니까요...》

그리고나서 이번에는 녀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다.

《나도 아주 경우없는 장사치는 아니고 또 여기에 점잖으신 윤참의 덕 서방님도 앉아가시는데 이 그림값을 후히 놓을레니 백냥에 두고 가시우.》

그러하여 그 녀인은 생각지 않던 돈 백냥을 받아쥐고 가게방문을 나섰다. 그 녀인은 그길로 비단천을 파는 판 가게에 들러서 붉은 치마 한감을 끊어가지고 돌아왔다.

그 녀인은 사임당앞에 나머지 돈을 내놓으면서 이 고마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진심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신사임당은 녀인이 내놓은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그것으로 나들이웃이라도 한벌 장만해업이라고 이르고는 그 녀인을 데리고 마음가볍게 다시 잔치집으로 향하였다.

(끝)

품앗이와 소거리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공동노동적인 품앗이와 소거리를 무어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일하였다.

품앗이

품앗이란 《품》 즉 로동력이라는 말과 지고 값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앗이》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품앗이를 다른 말로 《품바꿈》, 《품들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 로력을 서로 엇바꾸어가면서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해체간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품앗이로 논밭갈이와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농사의 모든 공정에서 공동로동을 할수 있었다.

소거리

소거리는 주로 논밭갈이와 씨뿌림때 부족되는 로력과 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두마리의 소를 중심으로 무는 로동조직이었다.

여기서 《거리》는 《결》의 발음이 길어진 말로서 소를 맺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소를 한마리씩 가지고있는 두집의 소를 쌍영에 매워서 일하였으며 때로는 소를 가진 두집과 소가 없는 몇집으로 무어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

품앗이와 소거리는 공동로동조직을 무어서 품을 많이 들어야 할 농사일을 공동로동으로 할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미풍이였다.

본사기자

저혈압때 지켜야 할 사항

최고혈압이 100이하인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중에는 병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증상은 주로 어지러움, 두통, 머리아픔, 피로감, 식욕없기, 어깨아픔, 갑자기 일어설 때 어쩔만큼, 경증 등이 있다.

혈압이 낮은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 다른 병이 생기는 일은 적다.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므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생활상 주의하면 된다.

우선 큰 병으로 생각하면서 자리에 눕거나 일을 그만두지 말고 정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며 아침체조, 일간체조 등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항상 기분을 좋게 하고 고된, 정신적긴장 등을 피하고 휴식을 정상적으로 하며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본사기자